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2004) pp. 249~287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심리인류학, 인성, 인지, 민족심리학, 문화심리학

심리인류학의 연구 동향:
1970년대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김주희*

1. 서언

심리인류학의 연구동향은 인류학계 내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따로 떼어 생각될 수 없다. 심리인류학은 신진화주의, 통계적 비교방법, 문화해석주의 등 인류학의 새로운 이론적 · 방법론적 조류를 적극적으로 도입 · 이용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연구 주제와 대상이 세분화되었다.[1] 다만 심리인류학이 인류학의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걸어온 길이 유난히 험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히 1970년대의 전환기는 연구 방향의 변화 뿐 아니라 연구 관심의 재생 내지 부활의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

*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 생활문제연구소

1) 이를 두고 학자들은 심리인류학의 르네상스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다(예: White & Lutz 1992: 1).

겠다. 이 글에서도 심리인류학의 후기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면서 1970년대를 전후한 연구들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심리인류학계 내에서 창출되고 있는 상기된 학문적 분위기는 주로 새 세대 인류학도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그렇긴 하나 '문화와 인성'(Culture and Personality) 분야[2] 시절의 원로 학자들 또한 나름대로 꾸준히 연구의 맥을 이어왔으며 그들에 대한 취급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필자는 심리인류학의 발달사에서 1970년대 이후의 연구 동향에 대한 리뷰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의 성격상 원로학자들이 유지해 온 연속적인 내용보다는 매 시기마다 신진 학자들이 주도한 변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심리인류학의 연구 동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960,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연구 과제의 측면에서 문화와 개인간의 관계, 즉 집단 내 개인적 차이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으며, 이론적 측면에서는 정신분석학이 퇴조한 반면 생태적, 경제적 개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인상주의적 자료 대신 특정 요인 분석을 위주로 한 기본적 방법론이 되살아났다. 한편 198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도구로서의 유용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으며, 문화해석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의 내면적 심리적 특성 대신 개인 외부의 문화적 요소들과 그 상징적 의미들이 다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면서 민족심리학(ethnopsychology),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등의 새 조류가 형성되고 문화주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 분석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리하여 1970년대의 기본적 방법론, 즉 과학적 방법론 대신 1980년대 이후에는 인본주의적이고 감정 이입적 해석이 주요 분석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 또한 그 전까지 소외되었던 감정(emotion)이 주요한 대상으로 떠

2) '문화와 인성' 대신 심리인류학의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오르고 있다. 한편 인지에 대한 연구는 심리인류학계 내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라면 지각에 대한 연구가 퇴조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심리인류학의 발달 과정은 또한 심리학의 그것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심리학계의 변화는 거의 직접적으로 심리인류학의 변화를 자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발달한 심리학계 내의 비교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은 그것이 인류학적 자료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심리인류학과의 만남을 재촉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진화심리학은 진화심리인류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심리학계에서의 비고쯔키(Vigotsky) 이론의 부활은 심리인류학에 큰 자극을 주면서 민족심리학과 문화심리학 형성에 기여했다.

2. 심리인류학의 재생

미드(Mead 1928)의 *Coming of Age in Samoa*를 이정표로 발달하기 시작한 심리인류학은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구의 절정을 이루면서 당시 미국 인류학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분야로 급성장하였다. 한편으로는 보아즈(Boas)학파의 문화적 상대주의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기초로 했던 심리인류학은 처음부터 학제 간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이는 곧바로 인류학자와 정신분석학자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다. 예컨대 베네딕트(Benedict), 미드 등을 중심으로 한 유형론자(configurationalist),—이들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로하임(Roheim), 드브로(Devereux) 등 정통 프로이디즘의 훈련을 받은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한 정신분석학적 환원론(psychoanalytic reductionism), 카디너

(Kardiner), 린튼(Linton), 뒤보아(DuBois) 등 신프로이디즘의 시각으로 인성문제를 다룬 인성매개론(personality mediation) 등이 나왔으며, 나중에는 대규모의 문명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국민성 연구 등이 나오기도 하였다.[3)]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인류학은 초기의 열기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냉각기를 맞게 된다. 사실상 그 당시 냉각의 속도는 너무나 빠른 것이어서 성급한 사람들은 심리인류학의 종말을 예언하기도 했으며, 그때까지 인성연구를 주도해 오던 많은 뛰어난 학자들은 인류학계 내에서 주변적 위치로 밀려나는 불행한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심리인류학은 젊은 인류학도들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함으로써 1960년대는 심리인류학의 암흑기로 불릴 만큼 연구의 진척이 미진했다.

1950, 60년대 심리인류학이 갑작스레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1940년대까지의 초기 연구들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4)] 비판의 성격과 내용은 초기 연구들이 택했던 이론과 방법론에서의 세부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심리인류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초기 연구들이 기본 전제로 삼았던 심리적 환원론(psychological reductionism), 문화결정론, 전형적(typical) 인성유형 개념 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정신분석학 이론에 입각한 유아기 결정론 또한 그 타당성이 도전 받았다.

개인적 심리현상을 통해 문화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심리적 환원론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혹독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를 초유기체적 개념으로 보는, 즉 문화의 독자성(culture sui generis)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문화란 개인의 심리적 과정과

---

3) 초기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바노우(Barnouw 1973: 91-163, 213-235), 보기뇽(Bourguignon 1979: 81-103), 복(Bock 1980: 57-58), 이광규(199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최초의 비판으로는 린스미스와 스트로스((Lindesmith & Strauss 1950)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는 무관한 독자적인 역동성을 지닌 것이며, 문화적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작용을 근거로는 풀이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심리인류학의 해체를 내세웠던 자들 또한 그들이며 특히 문화학(culturology)의 주창자인 화이트(White)의 심리인류학에 대한 거부감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 당시 심리인류학이 퇴조하게 된 배경으로 화이트와 루쯔(White & Lutz 1992: 4)는 다음의 네 가지 현상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인 대신 상징적, 제도적 힘의 역할을 강조하는 해석인류학의 발달, 둘째, 정신분석학적 시각을 향한 인지적, 언어학적, 생물학적 시각의 도전, 세째, 집단보다는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 넷째, 사적인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비판의 영향 등이다.

한편 외부의 비관적 평가와는 달리 심리인류학이 그간에도 꾸준히 발달해왔다는 것이 오늘날 공론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은 심리인류학 연구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가설과 개념 정의를 꾸준히 정리해 온 당시의 기성세대 학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가설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심리인류학의 변신을 꾀한 혁신적 신진학자들 덕분이었다. 문화적 현상이란 개인적 사고 이외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개인적 차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즉 심리적 환원론을 고수한 사피어(Sapir)와 라바르(LaBarre), 새롭게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정신분석학파의 드브로[5], 독자적 이론으로 문명사회 연구에 매진해 온 수(Hsu) 등은 전자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그리고 머독(Murdock)의 인간관계 지역파일(Human Relations Area File)을 기초로 일련의 비교문화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 화이팅(Whiting)과 그의 동료들, 개인적 차이의 중요성, 생리적 요인에의 고려, 인지현상(cognition) 연구의 필요성 등을 일찍이 예견했던

5) 예를 들어 *Fantasy and Symbol*(Hook 1979)은 그를 기리기 위하여 편집된 책이다.

왈라스(Wallace) 등은 후자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6]

심리인류학의 연구 노력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은 1961년 동시에 출간된 세 권의 중요한 심리인류학 저서로도 증명된다. 곧 수의 *Psychological Anthropology*(1st ed.), 카플란(Kaplan)의 *Studying Personality Cross-Culturally*, 그리고 왈라스의 *Culture and Personality*(1st ed.) 등이 그것들이다.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심리인류학적 관심을 지탱해 온 기성세대 학자들은 심리인류학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 인류학도들이 심리인류학에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도 아울러 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조류를 강조하면서 이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970년대는 심리인류학의 재생기라 일컬어진다. 이러한 재생은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한 젊은 세대 인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초기 연구들이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연구 과제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초기 연구들이 범했던 극단적 논리를 현명하게 피해 나가고자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문화와 전형적 인성유형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문화와 개인간의 관계에도 주목했으며, 인성의 형성에 있어 문화를 생리적 혹은 기술환경적 기초와는 전혀 무관한 원인 요소로 간주하는 지나친 문화결정론(cultural over-determinism) (Spindler 1978: 16) 대신 인성제도와 사회문화적 제도, 특히 생존 경제 구조와의 상호작용의 관점을 택했다. 이외에도 그들은 심리인류학의 형성기(1920~1935)때 주요 과제였던 문화와 인간 심성의 관계, 즉 보편적 인간 심성(psychic unity)의 유무에 대한 논쟁(Singer 1961: 18)을 정신분석학적 개념에서 탈피하여[7] 심리생리적 시각으로 재현했다(예: D'

---

6) 이들 외에도 심리인류학에 꾸준히 몸담아온 학자들로는 미드, 바노우, 스피로(Spiro), 드보스(DeVos) 등이 유명하다.

7) 예를 들어 1920년대 말리노브스키(Malinowski)와 정신분석학파인 존스(Jones), 로하임 등 사이에 벌어졌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은 유명한 것이다 (Barnouw 1973: 113-128 참조).

Andrade 1974; Ekman 1974; Gutmann 1974). 또한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요인들, 특히 생리적 및 생태적 요인들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예: Gussler 1973; Bolton 1978).

심리인류학은 1970년대에 이르러 방법론적으로도 정교화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보고자 하는 종단적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일정 기간 후의 재조사, 양적 자료의 보완 등이 시도되었다. 일반화의 작업도 초기 연구들이 안고 있던 인상주의적 혹은 직감적 확인 대신 가설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70년대가 심리인류학의 재생기로 볼 수 있음은 1970년대 초 발간된 많은 심리인류학 관계 저서들로서도 증명된다(예: Hsu 1972; Barnouw 1973; LeVine 1973, 1974; Williams 1975). 또한 1973년에는 심리인류학의 전문지인 *Ethos*가 발간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심리인류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재와 이론이 세분화되었으며 초기의 열기가 되살아났다. 이러한 열기는 1980년대와 9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 심리인류학이 특히 미국인류학계에서 다시 확고한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3. 문화와 개인

소규모의 원시집단을 대상으로 공유된 심리적 특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연구에서부터 대규모 문명사회를 대상으로 삼았던 국민성 연구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차이를 극소화 하거나 무시했던 것이 초기 연구의 특징이었다. 이에 비해 집단내의 일반적 경향(uniformity)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둔 전형적 인성 유형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적 차이 내지 다양성으로 관심의 영역이 확대된 것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심리인류학계

내의 주요 변화 중의 하나이다.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왈라스(1961: 123-63)의 유명한 "다양성의 조직"(organization of diversity) 대 "일률성의 복사"(replication of uniformity)의 논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피어(1917)는 이보다 훨씬 앞서 인간 고유의 자아인식에 따라 작용하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 과정에 기초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와 개인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며, 초기 연구들에서 제외되었던 예외적 집단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연구 과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8)]

문화와 개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론과 연구 대상에 있어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예를 들어 슈바르츠(Schwartz 1978)는 왈라스의 "메이즈웨이(mazeway)" 개념에 착안한 "이디오버스(idioverse)"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의 "이디오버스" 개념은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사건구조와 사건분류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및 정서적 지도'로서 실제로 민족지 자료에 적용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집단내의 공통성과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 서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애저튼(Edgerton 1978)은 집단의 일탈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 역시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곧, 종래에는 무시되어야 하는 소수 부적응자로 처리되었던 일탈자 집단이 전체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보기뇽(Bourguignon 1978, 1979)이 오랫동안 몰두해 온 강신(降神) 상태(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강신 상태는 1940년대까지만 해도

8) 그렇다고 하여 전형적 인성 유형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르바인(LeVine 1976)은 국민성 연구 식으로 아프리카인들의 공통된 인성유형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집단 내 특수한 사람만이 겪는 비정상적 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하나의 문화적 전통 내에 분포된 개인적 다양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 연구의 길을 터놓은 것으로는 심리생리학적(psychobiological) 시각을 들 수 있다. 이 시각을 도입한 연구들은 개인의 생리적 잠재력과 문화적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인성을 보고자 한, 다시 말해 인성을 심리생리학적 체계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Keesing 1981: 93). 거슬러(Gussler 1973)가 아프리카의 엥구니족을 연구하면서 강신 상태를 영양결핍증과 연결시킨 것 외에도, 볼튼(Bolton 1973, 1976)의 혈당부족증(hypoglycemia) 가설은 유명한 예이다. 이 가설은 호전적 기질의 소유자로 확인된 바 있는 페루의 고산족[9]을 연구한 결과 호전성의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생태적 조건에 따라 혈당 부족의 정도도 개인마다 다르리라는 전제하에 이것과 호전성 정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문화적 행위, 특히 비정상적이라 간주되는 행위를 생리적 요인으로 설명한 방식은 당시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왈라스(Wallace 1972)는 북극지방 에스키모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피블로크토크 증세를 칼슘부족증과 연결시켜 설명했는가 하면, 화이팅(Whiting 1964)은 열대지방의 모유대체 식품의 결여, 이것과 관련한 유아의 콰시오르코르 병, 오랜 산후 성 금기, 일부다처제 등으로 이어지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볼튼의 연구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개인을 각기 독립된 연구 단위로 취급함으로써 보편성을 지닌 가설 정립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섰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볼튼의 가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검증될 수 있는 것이었다.

집단간 중심적 인성의 차이보다 집단 내 개인적 차이를 강조한 시각은 인성과 사회문화적 변화와의 관계를 다루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되

9) 아이마라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LaBarre 1948; Tschopik 1951; Buechler & Buechler 1971 등). 볼튼은 콜라족을 연구하였다.

었다. 이는 어떤 문화집단 내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범적 기대에 순응시키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대안적 규범과 행위 모범에 접할 때 더욱 커진다는 이론적 틀에 기초한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문화적 변화 현상이 한 집단 내의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가, 또는 집단 내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소유자들, 따라서 서로 다른 인성 특징을 가졌을 개인들이 문화 변동을 어떻게 달리 수용하며 이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그레이브스 부부(Graves & Graves 1978: 518)는 자신들의 연구는 대부분의 표면적 행위가 하위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10] 그들은 문화접변(예컨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백인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어 나바호족의 도시 이주자들 사이에서 음주행위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개인적 차이가 각 개인의 인성 특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레이브스 부부는 성취동기, 역할규정, 집단 재확인, 경제적 압박 등의 사회심리학적 개념들을 도입・사용하였다. 스핀들러 부부 역시 메노미니족(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접변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백인문화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메노미니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메노미니족을 5개의 하위집단, 곧 문화접변 범주(acculturative categories)로[11] 분류・설명하였다(Spindler & Spindler 1971, Bourguignon 1979: 317에서 재인용).

전형적 인성유형의 집단 간 차이를 밝히고 설명하는 작업이 심리인류학의 고유한 특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교적 고립되고 동질적이었

---

10) 이때 표면적 행위라 함은 음주행위와 같이 조사자가 목격 가능한 행위를 일컫는다.

11) 즉, 전통지향적 집단(native-oriented group), 페이요트 의식 준수자(the peyotists), 과도적 집단(transitionals), 동화된 엘리트집단(elite acculturated), 동화된 하층 집단(lower status acculturated) 등이다.

던 소규모 종족이 점차로 사라져감에 따라 그리고 대규모의 복합사회가 보다 자주 연구 대상이 되면서 집단 내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실효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개인보다 집단, 즉 문화의 범주를 중요한 분석 단위로 삼는 연구 경향이 재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4. 인성과 생태학

생태적 요인을 도입한 것은 심리인류학의 이론적 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초기 연구의 과도한 문화결정론을 탈피하고, 정신분석학(즉 유아기 결정론)의 영향을 벗어나는 대신 새롭게 부상한 신진화주의, 특히 스튜어드(Steward)의 이론(Freedman 1979: 13)으로부터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과도한 문화결정론에 대한 반발은 인성을 생태적 압박에 대한 행동적 적응으로 간주하고 생태적 조건으로부터 인성 형성의 결정적 요인을 구하려는 입장을 불러왔다. 또한 유아기와 성인의 인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유아기 결정론에 대한 회의(Bock 1980: 132)는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의 경험 대신 현재의 상황, 특히 생태 ·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경향을 낳았다.

육아방식은 정신분석학적 개념 틀을 벗어나 생존 경제구조, 가족구조, 종교적 믿음, 기타 문화적 양상 등과 연결되어 설명되기 시작했다. 이는 육아방식을 인성 형성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대신 환경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제도 등 기본적 사회문화적 양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Munroe & Munroe 1974: 335)으로 간주하는 입장이었다.

육아방식과 생존 경제구조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특히 유명하다. 물론 유아기 경험에 관해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것이 당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카디너(1939)는 (린튼과 더불어) 그의 기본인성 구조(basic personality structure)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유아기 경험을 좌우하는 결정적 유형으로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화이팅과 차일드(1953)는 그들의 상관관계 모형에서 생계제도(maintenance system),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제도를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육아방식이 경제적 구조와 관련을 맺고 있되 일련의 문화적 사건에 있어서는 원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에—유아기 결정론이기 때문에—후기의 연구들과는 크게 구별된다.

후기의 연구들에서는 육아방식은 원인적 요인이 아니라 결과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한 선구적 연구로 흔히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Barry, Child & Bacon 1959)의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04개의 비문자 사회를 대상으로 육아방식과 생존 경제구조간의 관계에 기초한 가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후자에 대한 적응 행위의 일부로 다루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 하면서 여러 인성 자질 중에서도 그들의 특수한 경제적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인성 자질을 특별히 강조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식량축적이 낮은 사회(예를 들어 수렵채집사회)와 개인주의적, 확신적 및 모험적 인성특질을, 그리고 식량축적이 높은 사회(예를 들어 농경민 사회와 목축민 사회)와는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보수적인 인성특질을 연결시키는 가설을 내놓았다. 전자의 경우 식량 공급은 끊임없는 자연과의 투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솔선할 수 있는 인물, 즉 독립적이고 대담한 인성 소유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식량 공급은 연중 보호되어야하고 점차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의 지속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의 가설은 197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생태적 조건에 따라 행동적 ·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조사를 크게 자극했다. 에저튼(Edgerton 1971, 1974)의 유명한 '아프리카 동부지방의 문화와 생태조사'(The Culture and Ecology in East Africa Projec)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조사사업은 목축민 집단과 농경민 집단을 동시에 포함하는 네 개의 사회에 대한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에저튼은 이 조사를 통하여 목축민이 농경민에 비하여 보다 과감하고 독립적이며 호전적임과 동시에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다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전술한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의 연구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두 연구 결과의 차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볼튼 부부와 그의 동료들(1976)은 페루의 고산족을 상대로 에저튼의 조사사업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그들은 목축민과 농경민의 인성을 비교하면서 에저튼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의 그것을 반박하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배리 등(1976)은 그 후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선진 복합사회까지도 포함하는 186개의 사회를 대상으로 호전성, 경쟁성, 독립성, 성취욕 등 13개의 인성특질이 생존 경제구조, 정치구조, 영아와 어머니의 육체적 접촉도 등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표화하기도 했다.[12)]

인성과 생태적 조건과의 관계는 부모의 육아행위의 측면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로너(Rohner 1975)는 수렵채집사회와 목축민 사회에서 부모의 육아행위를 '수용적'인 것과 '거부적'인 것으로 각기 정의를 내리면서 그러한 육아행위에서의 차이는 각 사회의 생태적 조건이 요구하는 특정한 인성 자질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관점은 조금 벗어나나 역시 인성과 생태적 조건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쿵 부쉬맨의 영아행위 및 발달(예컨대 신체 운동의 성숙도 및 발달도, 인지기술의 발달도 등)을 연구한 것(Konner 1976)이 있고, 역시 쿵 부쉬맨의 유아의 일상 생활을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예컨대 수렵채집

12)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의 연구는 인지 및 지각연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베리(Berry 1975)는 그들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태조건에 따른 시각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경제의 작업리듬, 희소한 용수조건, 거주유형 등)과 결부시킨 연구(Draper 1976)도 있다.

5. 기본적 방법론

1970년대 이후 심리인류학은 방법론의 변화도 보였다. 초기 연구들이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문화와 인성간의 관계가 요구했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방법론(특히 유형론자들의 연구) 대신 비교적 제한된 정의와 문제점을 다루는 기본적 방법론이 보다 자주 이용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방법론은 초기의 문화특질 분석에서 더 발전한 것으로 어느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매우 한정된 변수들을 뽑아내어 그것들 간의 관계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pindler 1978: 33). 그리하여 종전의 인상주의적 내지 직감적 묘사 대신 매우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법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인류학 분야에서 기본적 방법론의 시작은 1950년대 초 화이팅과 그의 동료들이 시도했던 상관관계 연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들(1953)은 기본적 방법론에 이정표적 연구인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육아행위 제도와 종속변수로서의 질병과 관련된 원주민의 관습과의 상관관계를 인간관계 지역 파일에서 뽑아낸 75개의 사회를 대상으로 시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통계방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방법론은 가설의 정립을 장려하고 연구의 누적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점이 인정되면서 많이 이용되었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비교문화적 통계방법이 안고 있는 약점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13] 이 방

13) 상관관계 해석의 모호성, 오차개입의 가능성, 인성의 간접적 측정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Barnouw 1973: 185-187).

법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기본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은 더욱 더 높아졌다. 화이팅과 그의 동료들의 이론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고 나선 당시 젊은 세대의 심리인류학자들도 비교문화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자신들의 가설을 시험하였다(전 장에서 소개한 배리, 차일드와 베이컨(Barry, Chile & Bacon 1959, 1976), 베리(Berry 1975), 로너(Rohner 1975) 등).

기본적 방법론으로의 경향은 기존의 민족지 자료를 이용한 비교문화적 통계방법 외에 고도로 초점이 맞추어진 현지조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런 식의 현지조사는 보다 산발적이고 포괄적인 초기의 현지조사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시간표본에 따른 보다 면밀한 관찰법이 시도되었고 비교분석 결과 또한 통계적 용어로 제시되었다.[14)]

1954, 55년도에 착수되어 30여 년간 지속된 화이팅과 그의 동료들에 의한 '6개 문화 조사'(The Six Cultures Project)는 상당히 제한된 연구 과제와 방대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 조사사업은 기본적으로 6개 문화집단(뉴잉글랜드 지방, 케냐, 오끼나와, 인도 북부지방, 필리핀, 멕시코)에 대한 어린이의 인성 특징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이다. 교육환경, 성, 연령, 행위대상자, 그리고 개인적 환경조건 등을 독립변수로 삼고 이에 따른 어린이의 인성 특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이 조사사업은 기본적 방법론의 이점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여러 상이한 사회를 동시에 그리고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신빙성 높은 비교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15)]

기본적 방법론으로의 추세는 앞서 설명한 집단 내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와도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 방법론으로 추출된 변수들

---

14) 예를 들어 코딜(Caudill 1972), 드레이퍼(Draper 1976), 코너(Konner 1976) 등이 있다.

15) 이 조사사업의 결과는 많은 수의 논문 외에도 세 권의 주요 저서를 통하여 발표되었다(B. Whiting 1963; Minturn & Lambert 1964; B. & J. Whiting 1975).

은 집단 내 개인적 다양성의 분포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잘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가설의 검증과 문제해결식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던 당시의 문화인류학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물려 심리인류학계에도 기본적 방법론이 꾸준히 이용된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는 그러한 과학적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인본주의적 시각이 강조되고 감정과 같은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감정 이입적 해석이 주류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나중에 보게 될 민족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발달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6. 인지연구

특정 집단의 공유된 인지유형을 밝혀내려는 작업은 비교적 오래 된 것이다. 세계관(world view), 가치관(values), 주제(themes), 기풍(ethos), 가정(postulates) 등 학자마다 사용했던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했으나 집단의 공통된 인지현상을 보고자 했던 것은 공통된 것이었다(Barnouw 1973: 55-71 참조). 그러나 인지현상은 오히려 사회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던 주제이며, 초기 '문화와 인성' 분야의 경우 당시 팽배했던 정신분석학의 영향 때문에 인성의 정신역학(psychodynamics)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인성의 또 다른 면인 인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

'문화와 인성' 대신 심리인류학 명칭이 보편화되면서 연구 영역도 확대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인지연구의 편입이었다. 심리인류학자로서 왈라스(1961)는 일찍이 개인적 인지도(cognitive map)의 의미를 지닌 메이즈웨이와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을 창안하여 인지현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심리인류학 쪽의 인지연구는 주로 언어학적 측면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행위를 원주민의 사고력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주장했던 말리노브스키로부터 언어결정주의를 제창한 사피어와 워프(Sapir & Whorf)로 이어졌으며, 급기야는 1950년대의 민족과학(ethnoscience)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때 불붙기 시작했던 색조용어 분류의 보편성 여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16)]

후기 인지연구의 동향은 심리인류학자들과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의 만남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심리학계에서는 인지현상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축적하기 위해 비교문화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삐아제(Piaget)의 보편적 인지발달 단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검증의 필요성을 심리학자들이 절실히 느끼면서 가능했던 것이며, 이는 또다시 베네딕트, 미드, 사피어, 카디너 등이 제창한 심리문화적 상대론이 1950년대에 들어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상당수의 전문적 심리학자들이 비교문화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Th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등의 새로운 학회지가 간행되기 시작했다.

비교문화심리학과 심리인류학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곧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민족지 자료를 구하고자 현지에 뛰어 들었던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 인류학적 개념과 시각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콜(Cole), 프라이스-윌리엄스(Price-Williams) 등 1970년대 이후 인지연구를 주도한 대표적 심리인류학자들은 비교문화심리학자 출신이며, 그들은 집중적인 현지조사 경험을 토대로 이론의 발전을 꾀했다. 그들은 연령에 따른 사고의 발달 단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언어적 표현에만 의존했던 민족과학식의 형식 분석(formal analysis) 대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

16) 색채 지각에 대한 연구로는 문화집단 간의 물리적 차이를 주장한 본스타인(Bornstein 1975), 색조용어의 집단내 차이를 사회문화적 변수와 관련시킨 폴낙(Pollnac 1975), 중앙 안데스 고산족 연구를 통하여 본스타인의 가설을 반박한 볼튼 외(Bolton et al 1975)의 연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비스와 콜벳(Davies & Corbett 1998)의 연구 등이 있다.

전제하지 않은 분류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사용하였다.

비교문화심리학과 심리인류학의 만남은 전자의 실험적 방법과 후자의 자연적 관찰법 사이의 이상적 어울림을 기대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 점이 그 이전의 인지연구와 구별된다. 그러나 프라이스-윌리엄스(1978)와 콜(1975; 1978)이 고백했듯이 그러한 어울림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심리인류학자들 사이에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실험행위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 점점 밝혀짐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심리학의 전통적 실험론(experimentalism)과 인류학의 전통적 자연론(naturalism) 사이의 간격이 여전히 좁히기 어려움을 보여준 것이었으나, 인류학자들 측에서 적어도 실험적 방법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지적 접근 방법은 인성발달 분야에서도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과 접목되어 새로운 개념과 조사 도구를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Super와 Harkness(1986)는 "발달 적소(developmental niche)"라는 개념적 도구를 제안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육아 환경, 문화에 따른 육아방식, 육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어린이의 발달 경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어린이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여 특정한 문화적 규칙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즉 어린이의 능동적인 인지 작용을 행동적 측면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도구는 문화적 맥락에서 어린이의 발달과 가족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Harkness 1992: 117).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지연구에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었다. 즉 스키마 개념의 도입이 그것이다. 스키마연구는 1983년 한 해에만 20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가히 폭발적이었다(D'Andrade 1992: 51).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때까지의 인지인류학이 언어적 패러다임과 텍사노미(taxonomy)를 그 자체 지식의 구조라 생각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지식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신진 인지인류학도들은 일찍이 왈라스가 주장한 바 있는 스키마의 개념에서 바로 그러한 조직화의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용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스키마[17]란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적 추상체로서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과 행동적 반응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정보 과정, 즉 지각과 이해, 범주화, 계획, 인식 및 기억,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등에 있어 기본이라 간주되는 것이다(Casson 1994: 64). 그런데 이러한 스키마는 비교를 통해서만 그 개념이 유용하며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의 가능한 지식 구조의 범주를 탐구할 수 있고 보편적 특질과 양상을 기록할 수 있다 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나온 것이 비교스키마론(schematology)이며 당분간 지배적 인지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스키마이론은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스키마이론은 인간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인간이 현재의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과 무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키마이론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흔히 하나 이상의 해석을 낳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며, 이 때 스키마이론은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조정되고 통합되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Holland 1992: 75-76).

스키마연구 외에 1990년대에는 인지와 동기(motivation)를 통합하려는 연구들이 또한 많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연구들은 그 동안 인지인류학이 문화의 개념을 행동이나 사건 등이 빠진 지식체계로 좁게 설정해 왔던 관점에서 벗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고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전제를 기초로 행해진 것들이다(Bock 1999: 190). 아무튼지 인지인류학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문화가 인지적이고 개인의 머리 속에 있

17) 스키마의 세 가지 주요 특질로 경험의 단순화, 추론의 촉진, 목표에 의한 자극 등이 거론되고 있다(Keller 1992: 60).

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두 사람도 똑같은 지식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인지체계이며 어떤 체계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문화라는 공식적 수학적 모델이 문화적 지식에서의 집단 내 다양성을 서술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기도 했다(Casson 1994: 86). 그러나 인지인류학은 계속해서 인지심리학, 컴퓨터 과학, 언어학, 철학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빌려 오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분석이 시도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7. 개인과 문화: 논쟁의 재현

1980년대 이후 심리인류학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구 동향은 개인과 문화와의 관계라는 본질적 과제에 대한 논쟁이 재현된 것이다. 즉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개인적인 정신적 표상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이고 공공적 표상을 강조할 것인가 사이의 논쟁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류학계 내에서 기어쯔의 문화해석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계 내에서 비고쯔키이론[18]이 부활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을 무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 또한 심리인류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개인적인 심리적 과정을 중시하는 보편적 인간 심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문화라는 집합적인 개념을 중시하고 심리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주의 경향이 복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고적 연구들은 초기 '문화와 인성' 분야에서와는 매우 다른 시각과 방법론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18) 소련의 심리학자 비고쯔키에 의하면 학습은 언어를 통한 훈련이다. 이를 정서적 측면에 확대 적용해 보면 어느 집단의 특수한 정서적(사회적 정체성, 자아발달 등) 의미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분석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접근이 가능하다.

연구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비교적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게까지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민족심리학적 연구와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을 들 수 있다.[19]

우선 민족심리학적 연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모든 심리학은 민족심리학이다"는 기치 아래(Bock 1999: 115) 등장한 민족심리학적 연구들은 쉽게 말하면 심리적 특성들은 민족마다 다르다는 명제 아래 주로 감정[20]과 인성 문제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감정의 문제는 생리심리적 문제이며 따라서 감정이란 어느 민족에게도 공통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민족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거부한다. 필리핀의 이롱곳 부족의 '분노'의 개념인 '리겟' 감정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로잘도(Rosaldo 1980)에 의하면 원주민은 감정에 대해 서구인과는 다르게 생각할 뿐 아니라 감정을 적용하는 방식도 매우 다르다고 했다. 이롱곳 부족의 '리겟' 감정은 이를테면 개인적 좌절이 쌓여 생성되는 영어의 'anger'와는 매우 다르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즉 감정이 전적으로 내면적이고 개인적 영역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제도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브릭즈(Briggs 1970)가 에스키모인들의 놀라운 감정 자제 능력을 보고한 바 있듯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심리학은 민족마다 다른 감정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론 분석을 통하여 감정적 경험이 어떻게 창조되어 가는가를 밝히고, 감정 어휘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실제적 행동을 지시하는 가에 관심을 부여했다(White 1992: 41)는 점에서 새롭다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인지연구에 밀려 도외시되고 비하되었던 감정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어 '감정이 되돌아왔다'(Bock 1999: 224)는 선언마저 나오게 되고 여성학자들의 큰 관심

---

19) 1980년대 이후의 대표적 저널인 *Ethos*와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를 보면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 여기서 감정이란 사회적 관계에서의 감정을 나타내는 emotion으로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는 feeling과는 다르다.

을 끌게 된 것 역시 민족심리학의 기여라 할 수 있다.

인성, 즉 personality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함의를 경계하고 'person'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심리학의 또 하나의 주요 경향이다. 많은 비서구사회에서는 'person'의 개념은 한 개인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개인적 성격의 개념이 아니며,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정의된다는 시각에서 행해진 민족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비서구사회를 대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과 집단적 문화를 경계 짓는 것 자체가 서구적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심리인류학적 용어에 내재된 서구 문화적 함의에 특히 조심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예: Wierzbicka 1993). 같은 맥락에서 자아(self)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구의 자아 개념인 'self'는 비교문화적 시각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Whittaker 1992)는 결론에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민족심리학적 연구보다 문화의 힘을 더욱 강조한 것은 최근 20년간 서서히 발달해 온 문화심리학이다. 문화심리학은 '심리는 문화다'라는 전제 아래 심리적 특질에는 인류 보편적인 것은 없으며 단지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것만이 있을 뿐이라는 상당히 극단적 문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심리에는 정신역학적 메카니즘이란 없으며 개인적 심리란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문화마다 다를 뿐이라 주장함으로써 민족심리학보다 개인적 심리 과정을 더욱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화심리학은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학자인 스위더(Shweder 1997, 1999)에 의하면 감정, 의도, 자아, 도덕적 사고는 문화마다 다르며, 문화심리학의 초점은 지각, 범주화, 감정, 욕망, 선택, 평가, 의사소통 등의 방식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정서적 의미는 어떤 특

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획득된다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문화심리학에서는 담론 분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문화심리학자들은 비교문화심리학과는 달리 비고쯔키의 사회역사심리학 이론 즉 보편적 인간 심성을 인정하는 대신 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과정의 발달은 각 사회의 역사적 변인과 문화적으로 중재된 실제적 행동에 달려 있다는 주장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고와 감정의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방식을 발달시키고 테스트함에 있어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했다(Harkness 1992: 114). 다시 말해 사람들은 경험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의도적 세계를 집단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이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복수의 설명 이론이 필요하며, 개인적 심리적 과정은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문화적 의미와 실행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말쿠스와 카타야마(Markus & Kitayama 1998)의 연구는 문화심리학의 한 예이다. 그들에 의하면 'person'이라는 것은 사회적 그리고 집단적 구성물로서 주어진 문화적 맥락의 실행과 의미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인의 인성은 상호의존적이고 독립적이 아니며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person'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으로 경험되고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심리학은 민족심리학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개인을 무시한 지나친 문화주의(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임)에 기초한 민족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꾸준히 정신분석학 개념을 적용시켜온 학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로 스피로를 들 수 있다. 스피로는 자아와 감정은 단순히 혹은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적 믿음이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문화심리학의 주장은 그러한 믿음이 사회적

생활에서 어떻게 도전 받고 중재되는지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피로(Spiro 1984, White 1992: 25-26 재인용)는 로잘도가 그토록 특수한 것으로 설명했던 이롱곳의 '리겟' 감정의 작용 과정은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적 메카니즘으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21]

또한 스피로(Spiro 1996)는 미얀마인과 서구인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미얀마인도 서구인만큼 그러한 것들이 강하다고 했으며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와 지나친 문화결정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스피로(Spiro 1993)는 서구인의 자아와 비서구인의 자아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인도 알려진 만큼 자아중심적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Holland & Kipnis 1994)도 있으며, 멕시코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Farley 1998)에서는 개인은 집단적 목적을 위해 개인적 욕망을 억눌러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초자연적 존재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를 굴복시킨다는, 즉 사회중심적 자아문화에서의 개인의 갈등과 내면화과정이 그려지고 있기도 하다.

정신분석학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잉햄(Ingham 1996: 8) 또한 다음과 같이 문화심리학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심리학은 개인의 동기 혹은 그 동기가 사회적 실행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관계와 이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문화심리학은 확실히 인간 본성을 거부하고 심리를 내면화된 문화적 개념과 특질로 환원시켜 버렸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들은 정신분석학과 인류학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된 것은 공공적이고 공유된 의미와 상징만을 고려하고 해석하는 기어쯔의 해석인류학의 등장 때문이긴 하나 실제로 알고 보면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뿐 아니라 대표적 상징주의자인 터너(Turner)도 프로이디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단지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려 하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프로이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21) 태평양의 이파루크족에 대한 스피로와 루쯔의 논쟁도 유명하다(Nuckolls 1996).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Ewing 1992; Oring 1993).

위의 비판은 결국 인간의 심리가 인류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구성물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핵심적 심리에 대한 담론 분석, 이를테면 사회중심적으로 인성을 정의하는 사회에서 개인적 인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제안되기도 했다(White 1992).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행해진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보다 경험적 방법론을 중시하는 심리학자들과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해석주의적 민족지적 전통을 가진 인류학자들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Miller 1994; 1997). 주로 지금까지 태평양 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정을 연구해 온 민족심리학적 연구(예: White & Kirkpatrick 1985)가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지속되리라는 밝은 전망은 있으나 문화심리학의 미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며 따라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8. 결어

심리인류학이 지난 70여 년 간 걸어 왔던 길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을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집단(문화)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 사이의 긴장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간 심성이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산된 많은 이론과 가설, 학파들은 이 둘 중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고 정리된 것들이다. 이러한 논쟁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로 이러한 논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더 잘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연구들에 한해 정리했다. 사실상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것 이외에도 기존의[22] 그리고 새로운 중요한 과제들이 꾸준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상(異常)인성 연구의 내용, 특히 생리적 요인에 의존하여 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여 문화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예: Edgerton 1966; Langness 1976; Murphy 1976; Tan & Carr 1977)과 최근 정신의학과의 만남을 통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예: Good 1992; Levy 1992; Jenkins 1994)을 전혀 다루지 못했다. 또한 앞으로 인간 심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주리라 기대되는 진화심리인류학에 대해서도 전혀 소개하지 못했다.[23] 이 외에도 인성측정 도구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 역시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겠다.

인류학과 심리학의 만남은 지금까지 후자의 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컸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인류학적 자료와 접근 방법이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정신의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많은 훌륭한 심리학자들이 비교문화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심리인류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고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인류학의 심리학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인류학자들이 바라는 만큼 광범위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chwartz 1992).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문화적 요인을 무시하거나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 과제 또한 심리인류학의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

---

22) 예를 들면 드보스와 같은 원로학자(1999)는 문화적 차이는 유아기 경험 뿐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연구 과제를 꾸준히 다듬어 오고 있다.

23) 예를 들어 인간의 종(種)으로서의 보편성, 하위집단(성별, 연령별, 계층별, 인종별 등)의 성원으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개인적 특수성이 진화적 적응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음이 시도되고 있다(MacDonald 1998).

참고문헌

이광규

1991 『문화와 인성』, 서울: 일조각.

Barnouw, V.

1973 *Culture and Personality*, rev. ed., Homewood, IL: Dorsey.

Barry, H., I. L. Child & M. K. Bacon

1959 "Relation of Child Training to Subsistence Economy," *American Anthropologist* 61:51-63.

Barry, H., L. Josephson, E. Lauer & C. Marshall

1976 "Traits Inculcated in Childhood: Cross-Cultural Codes 5," *Ethnology* 15:83-114.

Berry, J. W.

1975 "Ecology, Cultura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Traditional Patterning and Acculturative Stress," in R. W. Brinslin, et al. e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Learning*, New York: Sage Pub., Wiley.

Bock, P. K.

1980 *Continuitie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1999 *Rethink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tudy of Human Action*, Prospect Heights, Ill.: Waveland Press.

Bolton, R.

1973 "Aggression and Hypoglycemia Among the Qolla: A Study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Ethnology* 12:227-59.

1976 "Hostility in Fantasy: A Further Test of the Hypoglycemia Aggression Hypothesis," *Aggressive Behavior* 2:251-74.

1978 *Aggression and Hypoglycemia in Qolla Society*, New York:

Garland STMP Press.

Bolton, C., R. Bolton, L. Gross, A. Koel, C. Michelson, R. L. Munroe & R. H. Munroe
1976 "Pastoralism and Personality: An Andean Replication," *Ethos* 4:4631-81.

Bolton, R., C. Michelson, J. Wilde & C. Bolton
1975 "The Height of Illu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titude and Perception," *Ethos* 3:403-424.

Bornstein, M. C.
1975 "The Influence of Visual Perception on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77:774-99.

Bourguignon, E.
1978 "Spirit Possession and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The Evolution of Inquiry,"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Psychological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to Human Nature and Cultural Differenc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riggs, J
1970 *Never In Ang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echler, H. & J. Buechler
1971 *The Bolivian Aymara*,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Casson, R. W.
1994 "Cognitive Anthropology," in P. K. Bock,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Caudill, W.
1972 "Tiny Dramas: Voc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Infant in Japanese and American Families," in W. Lebra, ed., *Transcultural Research in Mental Health*,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Cole, M.

1975 "An Ethnographic Psychology of Cognition," in R. W. Brislin, et al. e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Learning*, New York: Sage Pub., Wiley.

1978 "Ethnographic Psychology of Cognition - So Far,"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D'Andrade, R. G.

1974 "Sex Difference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R. A. LeVine,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1992 "Cognitive Anthropology," in T. Schwartz, ,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es, I & G. Corbett

1998 "A Cross-cultural Study of Color-Grouping: Tests of the Perceptual-physiology Account of Color Universals," *Ethos*26: 338-360.

Devos, G. A.

1999 "Toward an Integrated Social Science," *Ethos* 27: 33-48.

Draper, P.

1976 "Social and Economic Constraints on Children among the !Kung," in R. Lee & I. DeVore, eds., *Kalahari Hunters and Gather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Edgerton, R. B.

1966 "Conceptions of Psychosis in Four East African Societies," *American Anthropologist* 68:408-25.

1971 *The Individual in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f Four East African Peopl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4 "Pastoral-Farming Companions," in R. A. LeVine,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1978 "The Study of Deviance - Marginal Man or Everyman?"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Ekman, P.
1974 "Universal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R. A. LeVine,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Ewing, K. P.
1992 "Is Psychoanalysis Relevant for Anthropology?," in T. Schwartz,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rley, B. P.
1998 "Anxious Conformity: Anxiety and the Sociocentric-oriented Self in a Tlaxcalan Community," *Ethos* 26: 271-294.

Freedman, M.
1979 *Main Trends in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Holmes & Meier.

Good, B. J.
1992 "Culture and Psychopathology: Directions for Psychiatric Anthropology," in T. Schwartz,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aves, T. D. & N. B. Graves
1978 "Evolving Strategies in the Study of Culture Change,"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Gussler, J.
1973 "Social Change, Ecology and Spirit Possession Among the South Africa Nguni," in E. Bourguignon, ed., *Religio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Social Change, Columbus: Ohio State Univ. Press.

Gutmann, D. L.
1974 "The Country of Old Men: Cross-Cultural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Later Life," in R. A. LeVine,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Harkness, S.
1992 "Human Development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in T. Schwartz,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land, D.
1992 "The Woman Who climbed Up the House: Some Limitations of Schema Theory," in T. Schwartz, ,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land, D. & A. Kipnis
1994 "Metaphors for Embarrassment and Stories of Exposure: The Not-so-egocentric Self in American Culture," *Ethos* 22: 316-342.

Hook, R. H. (ed.)
1979 *Fantasy and Symbol*, London: Academic Press.

Hsu, F. L. K. (ed.)
1961 *Psychological Anthropology: Approaches to Culture and Personality*, Homewood, IL: Dorsey Press.
1972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Mass.: Chenkman.

Ingham, John M.
1996 *Psychological Anthropology Reconside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kins, J. H.
1994 "The Psychocultural Study of Emotion and Mental Disorder," in

P. K. Bock,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Kaplan, B. (ed.)
1961 *Studying Personality Cross-Culturally*, New York: Harper & Row.

Kardiner, A.
1939 *The Individual and His Society: The Psychodynamics of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Keesing, R. M.
1981 *Cultural Anthropology: A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Keller, J. D.
1992 "Schemes for Schemata," in T. Schwartz, ,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

Konner, M. J.
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 Lee & I. DeVore, eds., *Kalahari Hunter-Gather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LaBarre, W.
1948 *The Aymara Indians of the Lake Titicaca Plateau*, Bolivia, Menasha, WI: Memoi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68.

Langness, L. L.
1976 "Hysterical Psychoses and Possessions," in W. P. Lebra, ed., *Culture-Bound Syndromes, Ethnopsychiatry and Alternate Therapies*,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LeVine, R. A.
1973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Chicago: Aldine.

1974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1976 "Patterns of Personality in Africa," In DeVos, G. (ed.), *Responses to Change: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Van Nostrand.

Levy, R. I.

1992 "A Prologue to a Psychiatric Anthropology," in T. Schwartz,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desmith, A. R. & A. L. Strauss

1950 "A Critique of Culture-Personality Writ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587-600.

MacDonald, Kevin

1998 "Evolution, Culture,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119-149.

Markus, H. R. & S. Kitayama

1998 "The Cultural Psychology of Personal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63-87.

Mead, M.

1928 *Coming of Age in Samoa*, New York: Morrow.

Miller, J. G.

1994 "Cultural Psychology: Bridging Disciplinary Boundaries in Understanding the Cultural Grounding of Self," in P. K. Bock,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7 "The Interdependence of interpretive Ethnographic and Quantitative Psychological Methodologies in Cultural Psychology," *Ethos* 25: 164-176.

Minturn, L. & W. W. Lambert

1964 *Mothers of Six Cultures: Antecedents of Child Rearing*, New York: Wiley.

Munroe, R. H. & R. L. Munroe
1974 "Household Density and Infant Case in an East African Society," in R. A. LeVine, ed., *Culture and Personality: Contemporary Readings*, New York: Aldine.

Murphy, J.
1976 "Psychiatric Label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Science* 191: 1019-28.

Nuckolls, C. W.
1996 "Spiro and Lutsz on Ifaluk: Toward a Synthesis of Cultural Cognition and Depth Psychology," *Ethos* 24: 695-717.

Oring, E.
1993 "Victor Turner, Sigmund Freud, and the Return of the Repressed," *Ethos* 21:273-294.

Pollnac, R.
1975 "Intracultural Variability in the Structure of the Subjective Color Lexicon in Buganda," *American Ethnologist* 2:89-109.

Price-Williams, D. R.
1978 "Cognition: Anthropological and Psychological Nexus,"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Rohner, R. P.
1975 *They Love Me, They Love Me Not: Worldwide Study of Parental Rejection*, New Haven: HRAF Press.

Rosaldo, R.
1980 *Ilongot Headhunting*,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Sapir, E.
1917 "Do we Need a Superorganic?" *American Anthropologist* 19:441-47.

Schwartz, T.
1978 "Where is the Culture? Personality as the Distributive Locus

of Culture,"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Singer, M.
1961 "A Survey of Culture and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B. Kaplan, ed., *Studying Personality Cross-Culturally*, New York: Harper & Row.

Spindler, G. D.
1978 "Introduction to Part I," in G. D. Spindler, ed., *The Making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Spindler, G. D. & L. S. Spindler
1971 *Dreamers Without Power: The Menimini Indian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piro, M. E.
1984 "Some reflections on Cultural Determinism and Relativ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Emotion and Reason," in R. Shweder & R. LeVine, eds., *Culture Theory*, pp. 323-34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Is the Western Conception of the Self "Peculiar"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ld Cultures?," *Ethos* 21: 107-153.
1996 "Narcissus in Asia," *Ethos* 24: 165-191.

Shweder, R. A.
1997 "The Surprise of Ethnography," *Ethos* 25:152-163.
1999 "Why Cultural Psychology?" *Ethos* 27:62-73.

Super, C.M. & S. Harkness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Tan, E. K. & J. E. Carr
1977 "Psychiatric Sequelae Amok,"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59-68.

Tschopik, H., Jr.
1951 "The Aymara of Chucuito, Peru: I. Magic," *Anthrop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44.

Wallace, A. F. C.
1961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72 "Mental Illness, Biology and Culture," in F. L. K. Hsu,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Mass.: Schenkman.

White, G. M.
1992 "Ethnopsychology," in T. Schwartz,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 G. M. & J. Kirkpatrick (eds.)
1985 Person, *Self and Experience: Exploring Pacific Ethnopsychologies*,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hite, G. M. & C. A. Lutz
1992 "Introduction," in T. Schwartz, , G. M. White & C. A.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ing, B. B. (ed.)
1963 *Six Cultures: Studies of Child Rearing*, New York: Wiley.

Whiting, B. B. & J. W. H. Whiting
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Whiting, J. W. H.
1964 "Effect of Climate on Certain Cultural Practices," In W. H. Goodenough, ed., *Explorations in Cultural Anthropology*, New York: McGraw-Hill.

Whiting, J. W. H. & I. L. Child
1953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A Cross Cultural Study*, New Haven: Yale Univ. Press.

Whittaker, E.
1992 "The Birth of the Anthropological Self and its Career," *Ethos* 20:191-219.

Wierzbicka, A.
1993 "A Conceptual Basis for Cultural Psychology," *Ethos* 1993: 205-231.

Williams, T. R. (ed.)
1975 *Psychological Anthropology*, Paris: Mouton.

〈Key concepts〉: psychological anthropology, personality, cognition, ethnopsychology, cultural psychology

Trend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Centering on Studies since 1970s

Joohee Kim*

This review deals wit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trend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since 1970s. The field which was once the most promising and popular subject among students experienced huge hardship during 1960s without being able effectively to cope with the harsh criticism against its premises and methodology. It is only during 1970s that the field regained its vitality among new generation scholars who actively utilized newly emerging theories and applying them to cross-cultural psychological data. More recent trends seen in those studie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ethnopsychology and that of cultural psychology are also to be given the credit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field.

This review 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shows that the debate on the problem of individual diversity vs. shared psychology has been the main theme in the field. It started with an emphasis on shared psychology, later turning to individual differences,

*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returning to shared psychology again. In this debate psychological anthropologists have always adopted trends of psychology, often coworking with psychologists who had strong cross-cultural interests.